



과거와 미래가 한데 어우러진 전남 고흥 여행

허준성 | 여행작가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섬 전체가 미술관이라는 연흥도가 있어서 그런 별칭이 붙긴 했지만, 연흥도가 아니더라도 다도해 해상을 따라 이어지는 해안선과 작은 섬들, 그리고 고흥의 중심 팔영산은 자연이 만들어낸 미술 작품이나 다름없다. 또 고흥에는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이라는 수식어도 따라다닌다. 고흥에 이어져 있는 나로도에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위성을 직접 발사해 성공적으로 우주 시대를 연 곳이기도 해서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소록도



팔영산자연휴양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은 2013년 우주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던 나로도에 있다.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직접 쏘아 올렸다는 것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우주센터 입구에 있는 우주과학관은 우주에 관한 원리와 로켓, 인공위성 등 우주 과학을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과학관 앞에는 실물 크기의 나로호가 전시되어 있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시원한 풍경을 보며 산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소] 전남 고흥군 봉래면 하반로 490

[전화] 061-830-8700

[운영] 10:00~17:30, 월요일 휴무

[요금] 어른 3,000원, 어린이 1,000원



TRAVEL TIP

고흥우주발사전망대

우주센터에서 직선거리로 17km 떨어져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우주과학관이 있는 나로도는 물론이고 다도해 해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을 보며 전망대 카페에서 차 한잔하기 좋다.

[주소]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산76-1

[전화] 061-830-5870 [운영] 09:00~18:00

(계절에 따라 유동적), 월요일 휴무

[요금]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



우주에 조금 더 가까이 고흥우주천문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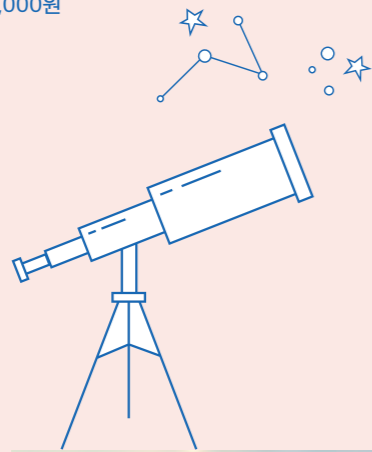
우주에 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할 만한 곳이다. 전국에 천문과학관이 여럿 있지만, 우주를 향한 첫발을 내디딘 고흥에서 바라본 우주는 더욱 신비롭게 느껴진다. 천체투영실에서 우주의 생성과 소멸을 주제로 한 3D 영상과 계절별 별자리 설명이 이어진다. 800mm 달하는 대형 망원경으로 낮에는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고 밤에는 달의 크레이터, 목성과 토성, 별자리 관측이 진행된다. 빛 공해가 적은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저녁 7시 이후 진행되는 별 관찰을 추천한다.

[주소]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기산선암길 353

[전화] 061-830-6691

[운영] 14:00~22:00, 월요일 휴무

[요금] 어른 3,000원, 어린이 1,000원



한센인의 아픔이 서려 있는 소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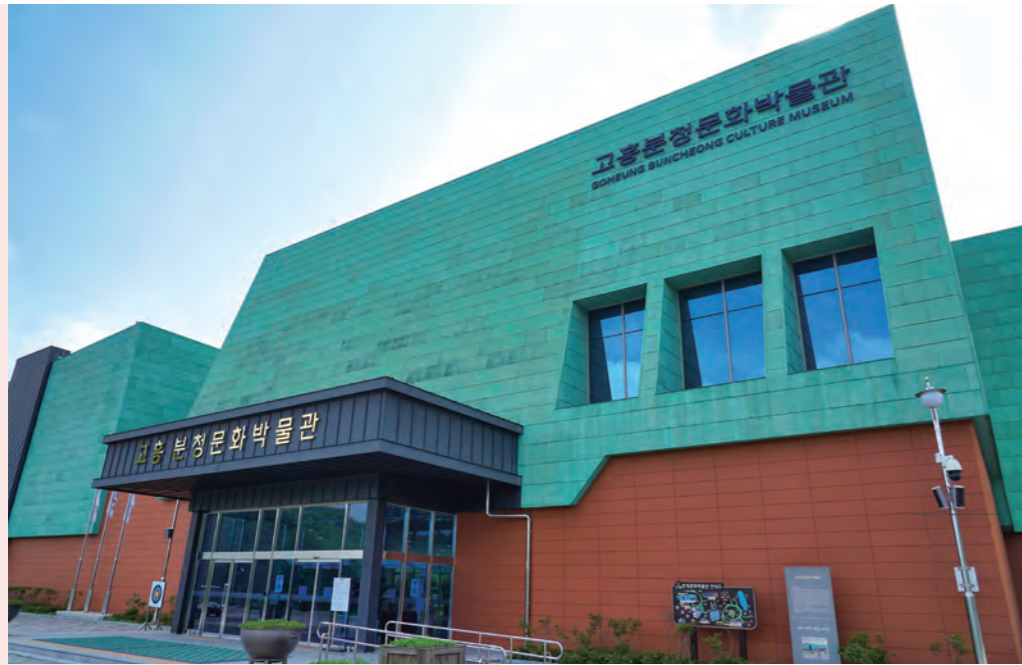
어린 사슴 모양을 닮아 소록도라 불리는 섬으로, 어여쁜 이름과 달리 소록도에는 한센인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다.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그전에는 한센병 환자들 격리를 목적으로 모아두었던 섬이었다. 단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에서 강제로 분리되어 차별과 편견 속에서 생을 보내야 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와 마주하게 된다. 한센인이 죽은 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검을 당했던 검시실, 환자를 가두고 체벌했던 감금실 등 과거 소록도의 흔적이 모두 남아 있다.

[주소]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130-2(주차장)

[전화] 061-840-0521

[운영] 09:00~17:00





국내 최대규모의 분청사기가마터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국내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가마터가 있던 운대리에 자리 잡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백토 분장의 아름다움이 뛰어난 분청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흙으로 만든 그릇 위에 백토를 발라 구운 자기를 분청사기라 한다. 운대리는 고려청자 가마터 5기와 조선시대 분청사기 가마터 27기가 모여있던 곳이다. 백토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청사기를 만들었던 곳이고, 특히 하얗게 그릇 전체를 물들인 '덤벙분청사기'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분청사기는 청자에 비해 활달하고 민예적인 무늬 특징을 가지며 고흥지역에서는 일상생활용 그릇을 주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41-6

[전화] 061-830-5990

[운영] 09:00~18:00, 월요일 휴무

[요금] 어른 2,000원, 어린이 1,000원

은하수가 쏟아지는 밤 팔영산자연휴양림



고흥 8경 중에서도 팔영산을 으뜸으로 친다. 고흥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1봉인 유영봉에서 시작해서 8봉인 적취봉까지 일직선으로 솟아나 있다. 멀리서도 8개의 우뚝 솟은 봉이 선명하다. 기암괴석이 많고 산세가 험한 편이지만 일단 정상에 오르면 다도해 한려해상의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휴양림에는 조용하고 한적함이 특히 마음에 드는 야영장이나 숲속의 집에서 하루 묵어도 좋다. 광해가 없어 밤마다 별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별이 많이 보인다. 여름 전후로는 어렵지 않게 은하수가 보이기도 한다.

[주소] 전남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1347-418

[전화] 061-830-5386

[운영] 09:00~18:00

[요금] 입장료 무료, 야영장/숲속의집 별도

